

연예뉴스 스테이션

연기자 윤은혜, 디자이너 윤춘호 표절 논란

연기자 윤은혜가 8월29일 중국 동방위성TV의 디자인 서바이벌 프로그램 '여신의 패션'에서 선보인 의상이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윤은혜는 할리우드 영화 '나니아 연대기'를 주제로 흰색 코트에 날개를 단 듯한 디자인으로 1위에 올랐다. 그는 동물원의 어린 사자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했다. 하지만 디자이너 윤춘호는 5일 SNS에 "조금 다르니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불쾌하다. 내가 느끼고 직원들이 느낀다. 옷을 만드는 선생님들, 우리 옷을 아는 사람들이 느끼면 맞는 게 아닐까. 알고 보니 아르케(회사) 옷을 며칠 전에도 협찬으로 픽업해갔던 스타일리스트와 종종 입던 배우, 둘이 함께 만들었다니 그래서 더 확신할 수 있다"고 불쾌한 반응을 드러냈다. 윤은혜 측은 표절논란에 일절 대응하지 않고 있다.

'티어스' 작곡가 주태영, 혈액암 투병 끝 사망

가수 소찬휘의 '티어스' 등을 만든 작곡가 주태영이 6일 오전 혈액암으로 사망했다. 향년 43세. 고인은 2001년 혈액암이 발병해 항암치료를 해왔다. 2011년 자가 골수이식을 받아 완치됐지만 최근 또 재발해 치료를 받아왔다. 고인은 핑클 '영원한 사랑', 잭스키스 '컵백', 클리비 '드리밍', 구피 '쇼크' 등 여러 히트곡을 작곡했다. 빈소는 서울 반포동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9일 오전 7시.

美 연예지 "씨엘, 올가을 기대되는 데뷔 가수"



미국 데뷔를 앞둔 씨엘(사진)이 미국 연예전문지 엔터테인먼트 위클리(EW)가 선정한 '올가을 기대되는 데뷔 앨범'의 주인공으로 뽑혔다. 3일 EW는 "씨엘은 올가을 매드 디센트와 함께한 첫 앨범으로 미국 데뷔를 앞두고 있다. 씨엘은 유행제조기이자 매드 디센트의 수장 디플로, 스크릴렉스 그리고 한국의 지드래곤과 함께 협업한 '더티 바이브'로 자신을 알렸다"고 소개했다. 또 데뷔 앨범이 영어로 만들어지겠지만 씨엘만의 강렬하고 시월한 래핑은 변함없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전했다.

편집 | 최해경 기자 hk7048@donga.com

영화 랭킹

자료:영화진흥위원회
8월 30일~9월 5일

1위 영화
정보보기



순위	영화	주관관객	누적관객	개봉일
1	베테랑	1,271,740	11,652,449	08/05
2	엔트맨	881,336	883,114	09/03
3	뉴티 인사이드	476,536	1,715,852	08/20
4	암살	376,646	12,434,478	07/22
5	오피스	181,852	193,836	09/03
6	치외법권	155,354	335,249	08/27
7	미션 와이프	128,648	930,298	08/13
8	미션 임파서블 5	65,504	6,112,978	07/30
9	아메리칸 울트라	65,089	159,415	08/27
10	겔로우스	49,278	50,754	09/03

이해리 기자 goli1024@donga.com



영화 '밀정'에서 여성 독립운동가 역할을 맡은 한지민. 스포츠동아DB

한지민, 전지현 효과 있나?

영화 '밀정'서 치열한 여성 독립 운동가 맡아
'암살' 전지현 사회적 파급력 이어갈지 관심

배우 한지민은 '전지현 효과'를 이어갈 수 있을까.

한지민이 영화 '밀정'(감독 김지운·제작 위더스필름)의 여주인공으로 나선다. 영화는 일제강점기 항일 무장투쟁을 통해 독립운동을 벌인 투사들의 이야기. 한지민은 중국 상하이와 단둥, 경성을 넘나드는 독립운동가 연계순 역할을 소화한다.

한지민과 '밀정'의 만남은 지금까지 1250만 관객을 모은 전지현 주연 '암살'과 여러 모로 닮았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여성 독립운동가의 치열한 삶을 그린다는 것뿐 아니라 극중 여러 인물 가운데 누구보다 투지가 강한 독립군이라는 점이 비슷하다.

특히 '암살'에서 보여준 전지현의 활약으로 그 시대를 살아낸 실존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삶이 다시 주목받는 분위기까지 형성된 상황. 이렇게 모인 여러 기대감이 '밀정'의 한지민에게 그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사실 '밀정' 제작진은 주인공으로 일찌감치 송강호와 공유를 확정했지만 이들과 이야기를 완성하는 연계순을 맡길 적임자를 찾기 위해 최근까지 고심을 거듭해왔다. 험난한 시대에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여성 독립군을 표현하는 작업이 간단치 않은데다 한편으로는 상대적 공유와 아련한 멜로 연기로 호흡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영화계 한 관계자는 6일 "기존의 톱 배우들이 욕심을 보인 것은 물론 몇몇 신인까지 주요 후보로 거론됐다. 경합 끝에 한지민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며 "여러 이미지를 보여줘야 하는 역할에 가장 적합한 연기자라는 평을 얻었다"고 밝혔다.

'밀정'의 제작비는 100억원대로 꾸려질 전망이다. 일제강점기의 분위기를 재현해야 하는 시대극이란 특성도 있지만 곳곳에 담긴 대규모 폭파신과 중국 현지 로케이션 계획 중인 만큼 스케일이 만만치 않다. 할리우드 스튜디오 워너브라더스가 한국영화 시장 진출을 선언한 이후 본격 제작하는 첫 번째 영화라는 점에서도 시선을 끌고 있다.



참채된 TV사극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되는 장혁, 유아인, 송일국(왼쪽부터).



스포츠동아DB

세 남자, TV사극 부활 이끈다

〈장혁·유아인·송일국〉

장혁 '객주' 유아인 '육룡' 송일국 '장영실'로 안방행
모두 영웅스토리에 무게…참채된 사극 살릴지 관심

연기자 장혁과 유아인, 송일국이 사극의 구원투수를 자임하고 나섰다.

상반기 기대작이었던 KBS 1TV '장비록'과 MBC '화정' 등 최근 사극이 좀처럼 참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들이 나란히 새로운 사극의 주인공으로 나서며 안방극장 사극의 부활을 이끌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혁, 유아인, 송일국은 각각 KBS 2TV '장사의 신-객주'(객주), SBS '육룡이 나르샤'(육룡), 2015, KBS 1TV '장영실'을 통해 시청자를 만난다. 특히 이들은 각 주연작을 통해 '영웅 스토리'에 새롭게 무게를 둔다. '장비록'과 '화정'이 인물보다는 역사에 초점을 맞춘 상대적으로 몰입도를 떨어뜨렸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이다. 그동안 화제를 모았던 대다수의 사극은 역사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주인공이 난관과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하기까지 과정을 밀도 있게 그려 시청자의 눈길을 끌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베테랑' 가볍게 제친 '엔트맨'…역시 마블 영웅!

낮은 예매율 불구 개봉 첫 주말 100만명 ↑
'어벤져스' 등 제작 마블스튜디오 저력 과시

마블스튜디오가 한국에서 '흥행 보증수표'로서 진가를 또 한 번 증명하고 있다.

할리우드의 대표 영화 제작사인 마블스튜디오(마블)의 신작 '엔트맨(사진)'이 3일 개봉 이후 첫 주말인 6일까지 누적 관객 100만명을 돌파했다. 개봉 전부터 상당한 인지도를 갖춘 기존 마블 영화와 달리 유명세가 전무했던 '개미인간'을 주인공으로 내세웠지만 반응은 고무적이다. 기존 흥행 1위였던 '베테랑'도 가볍게 제쳤다.

마블은 그동안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헐크 등 인기 영웅 시리즈를 통해 국내에서 막강한 흥행 팬덤을 과시해왔다. 올해 1000만 관객을 모은 '어벤져스:에이지 오브 울트론' 역시 마블의 작품이다.

반면 '엔트맨'의 인지도는 마블의 영화라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였다. 9월로 개봉 시기가 결정될 때까지만 해도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 개봉을 앞두고 예매율 60~70%를 거둔지 넘긴 마블 시리즈와 달리 30%대에 그쳤다



는 점도 상대적으로 낮은 주목도를 드러낸다. 엔트맨을 연기한 폴 러드 역시 국내에는 낯선 배우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개봉 직전 역전됐다. '마블이 내놓은 새로운 영웅 시리즈'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빠르게 관객을 흡수하고 있다. 국내 배급사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는 6일 "엔트맨이 내년 개봉하는 마블의 새 영화 '캡틴 아메리카:시빌 워'와 그 이후 '어벤져스3:인피니티 워'에 출연한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관심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2주차 흥행 전망 역시 밝다.

이에 더해 '엔트맨'에는 전문적인 과학지식이 적극 활용되면서 인기를 더한다. 물리학의 기초인 원자와 분자를 기본으로, 인간의 크기를 개미 수준으로 줄이는 과학 기술이 현란하게 펼쳐져 시선을 끈다.

이해리 기자 goli1024@donga.com

살을 빼는 것보다 찌는 것이 더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살 안찌 걱정되는 분~

나이가 들면서 살이 조금 찌고 배도 약간 나오는 것이 왠지 안성맞춤이고 졸라있어 보인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거나 마르는 사람도 있다.

다른 아이들에 비해 체력이 떨어지고 주위가 산만하여 성적이 처지고 특히 편식으로 인한 영양이 고르지 못하거나 성장이 빈약하다고 호소하는 부모님은 아이에게 고른 영양섭취와 함께 '살찌오'를 먹이는 것도 좋은 방법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살찌오'는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음식에서 얻을 수 없는 성분과 꼭 필요한 성분들로 흡수가 잘 되어 빠르게 작용한다. 아무리 먹고 또 먹어도 살이 찌지 않거나 허약하고 배사 쉽게 지치는 등 기초체력이 없는 사람들과 이유없이 마르는 사람들은 '살찌오'를 꼭 한번 드실 것을 권한다.

▶ 잘못된 식습관이 미르게 한다

나는 많이 먹는데도 살이 안찐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대개 식습관이 올바르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영양소만 과도하게 먹거나 부족하게 먹게 되어 적절한 체중증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신이 채식 위주

의 저칼로리 식사만 하는 경우라면 체중 증가는 당연히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도 육류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사람들이 있다. 어릴 때 야마 편식하지 말라,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을 것이다. 모든 영양이 포함된 균형 잡힌 식사와 적절한 운동이 건강한 체중 유지의 지름길이다.

구입문의: 1661-1224

입금계좌: 농협351-0651-2246-73 제이애스넷

통산판매 2013 서울관악 0804호 제이애스넷 E-mail kakase4@naver.com

특허 제10-1314762호

www.sunsea.kr

소리를 크게 증폭하여 들려드립니다

최첨단 음성증폭기 오늘 대할인 행사

"자집을 회로 설계로 잡음이 적어 선명하고 또렷하게 들립니다"

전문기업에서 생산한 음성증폭기 대할인 행사

필요하신 모든 분들에게 최고의 선물!!

무선형으로 뛰어난 착용감, 초소, 초경량 음성증폭기 건전지가 필요없는 충전식(고속충전, 장기간 사용) 간편한 작동, 급속 충전방식으로 손쉽게사용 청력에 맞추어 10단계 음향조절기능

이런 때 사용하세요

- ▶ 가족, 친구와의 대화시 콘서트가 필요할 때
- ▶ TV시청시, 방송음을 좀더 크게 듣고 싶다.
- ▶ 직장에서 상사의 부름을 크게 듣고 싶다.
- ▶ 상사가 상대방의 소리를 크게 듣고 싶다.
- ▶ 강사가 멀리 있어도 강의를 크게 듣고 싶다.
- ▶ 두손으로 작업하면서 좀더 크게 듣고 싶다.
- ▶ 종교행사시 좀더 크게 듣고 싶다.

www.sunsea.kr

★ 이런 분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체험 후 구입하신분/택배로 받으신 분들중 30일 경과하신 분 제품보호용 필름을 제거하신 분

무휴제휴 외는 길: 2호선 서울대입구역 역출구 원당초교 뒤편

입금계좌: 농협351-0651-2246-73 제이애스넷

통산판매 2013 서울관악 0804호 제이애스넷 E-mail kakase4@naver.com

구입문의: 1644-2464

그것 참 신통하다!

신통 방통 파워칩

통증

이게 바로

소문으로만 들던 바로 그제품!

참 좋은데... 일단 써보신 분들이 추천하는 제품

겉리고 쓰이고 시큰거리는 곳을 신속하고 빠르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간편하고 쉽습니다!

▶ 제품명: 신통방통 파워칩 ▶▶▶

음이온 부착용 패치 1포 1매 82개입

10포단위 판매(총 80개)

50분 한정

파격구매 찬스!!!

불편한 곳에 붙이세요

구입문의: 1661-1224

입금계좌: 농협351-0651-2246-73 제이애스넷

통산판매 2013 서울관악 0804호 제이애스넷 E-mail kakase4@naver.com